

고은 불교대하소설



문노니 답하노니

바 다 밑에서는 지진이 지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바다 위의 섬에서는 아직 그 지진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우녀와 소석행자가 잠결에 어떤 미세한 흔들림을 느꼈으나 다시 잠속으로 빠져 들어갔을 뿐이었다.

요즘 우녀는 꿈 속에서도 누구와 말을 주고 받는다. 그것은 대해가 문동병 환자가 아닌 사실이 밝혀진 이래 우육도 사람들의 대화가 부쩍 활발해진 일과도 무관하지 않다.

어떤 꿈 속에서는 낮에 하얀 말을 이야기기도 하였다. 언젠가, 무육도를 떠난 사람들이 이곳 도랑의 공부에도 불구하고 온갖 괴로움을 감당하는 중생노릇인가 하고 격정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 격정이 꿈속에서 이어지기도 하였다.

우녀의 말을 들은 사람은 반드시 인담만이 아니었다. 인담이라 하더라도 꿈속에서는 사람이기보다 꿈의 투명체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허상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그 허상은 듣기만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우녀는 그런 허상을 상대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녀 자신의 말이 상대방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말하자면 대담없는 대답에 우녀의 말이 이어지고 있었다.

... 그렇지요. 만화님이 천상계에 태어난 뒤 다시 고통받는 중생이 된 것이나 남각님의 자국, 무전의 바다 짐승 등도 그 중생노릇을 한번 뒤집어 보면... 거기서 보살의 같이 나타나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지요.

... 어디 가서 어떤 중생으로 태어나더라도 그것이 실상(實相)이 아니라 무아(無我)인 것이라면 윤회나 인과 자체가 이미 공(空)을 깨친 경지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번뇌가 곧 보리(菩提)임을 알고 있거니와...

나는 진작에 저 청나라 중원지방에서도 더 먼 내면 중환의 어느 암굴 사원에서 살고 있는 합두스님의 수행을 꿈속에서 볼 수 있었거니와 그 스

님과 나는 맛마다에서 서로 같은 뜻을 나눌 수 있었지요. 그 스님이 말하기를 막고공의 수행이 전생의 수행이나 괴로움과 동등한 것이라면 막고공의 수많은 암굴사원을 다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합두스님의 모습은 한 니승(尼僧)의 그윽한 모습이 아니라 아주 무시무시한 역사(力士)와도 같은 힘막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스님의 사투는 눈빛이 그만 공중의 내 몸을 마구 찢어내는 것이었습니다.

... ..

그런 합두스님이 다른 날의 꿈속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지난 날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서 중국 남방에서 거기까지 전해진 말쉴린 차를 마시면서 지금 나는 차의 향기를 듣고 있다고

말한 적도 있었지요. 향기를 코로 맡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마치 관세음보살이 사바세계 중생의 소리를 귀로 듣지 않고 눈으로 보는 일과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 ..

그 차는 썩어버린 차일 때 대일에 바꾼 채 거의 내리개까지 있고 있다가 실컷 발효된 나머지 그 향내음이 가까운 차맛을 내는 것이라 하며... 과연 그런 차에서는 어떤 태고(太古)의 소리가 들릴 것입니까.

... ..

그 스님이 어느날 꿈속에서는 내려다 어서 오라, 어서 와 함께 살자고 손짓을 해대기도 하였는데... 그만 나는 이 무육도의 바위 밑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대로 이곳의 선물이 된 셈이지요.

이런 우녀의 일들이 섬에 찾아온 있던 지진 때문에 꼭 그랬다. 지진은 마치 나를 잊지 말라, 나는 항상 너희를 밤 밑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섬을 몇차례 흔들려 놓고 갔다.

방안의 선반에 둔 경권(經卷) 한 짚이 쏟아져

밤바닥에 흩어진 것은 이 도랑에 문자에 왜매인 사람이 있음을 경계한 것인가. 그 경계들이 밤바닥에 떨어질 때 그 막 한두개에 인담의 등딱이 맞은 것은 이 도랑이 구업(口業)뿐이나 하는 사람이 있음을 경계한 것인가.

그밖에도 장독이 다른 웅기와 부딪쳐 깨졌다. 그것은 가혹히나 먹는 앞에 소홀한 도랑의 환경이나 간장을 얹어버린 얼은 차리의 비뚤음을 따다가 그것으로 찜맛을 맛보라는 뜻이란 것인가.

“이 물은 깨닫는 술입니다
지난날 퍼마신 술이 알고보니
미혹의 물이었습니다”

길 돌아온 석마가
비단 굴레 벗어났음인가
(金網金網解帶水
回途石馬出紗籠)

대해는 그 모진 질량이 낮게 되자 그 이전의 대해가 아니었다. 다시 한번 눈빛이 살아났고 얼굴에는 지난 날의 잠성노릇이나 하던 자국이 다 없어져 말이었다.

인담은 그의 환공했던 질량이 병이 아니라 큰 공부였다고 생각하였다. 마치 무당이 되기 전의 모진 무병(巫病)처럼.

“대해처사가 이제 유마거사일세.”



“대해처사가 이제 유마거사일세” “유마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지진이 지나간 뒤에서 물으로 건너가 잠을 구해 줄 임두도 나지 않았으므로 바닷물로 간을 맞춰 푸성귀를 끓인 것은 어김없는 사실이었다. 소석행자는 이에 배추 맛따발을 새끼줄로 단단히 엮어서 그것을 파도속에 집어넣었다가 깨달으면서 간이 든 찬거리가 되게 하였다.

... ..

대해가 지진이 지나간 뒤 이번에는 아주 된 질량에 걸려 공공 알기까지 하였다. 그런 중에도 “문동병은 아니니 나를 재발 물에 던지거나 하지 마시오”라는 말을 할 수 있었다.

인담이 그런 대해를 사나움들만 정성(精誠)했었다. 손수 죽을 쑤어 날랐으며 환자의 몸을 쉬지않고 주물러서 맥박을 유연하게 질들었다.

보아라 그를 듣고 나온 고기 도리어 물에 머무는데

“대해면 됩니다. 유마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글이 그런 유마가 될 까닭이 있었습니까.”

이 말에는 함부로 넘어갈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낚시의 꿩이 그저 물 위에 솟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밑의 물속에는 끈끈하게 매달려있는 낚시 바늘과 작은 낚시머리가 달려있기 때문인데 그런 낚시머리가 대해의 말 속에는 달려있는 것 같았다.

그랬다. 저 석가모니 부처님과도 어쩌면 대등한 유마거사가 누구인지를 대해가 알 리 없었다. 대해야말로 바다에서 방금 전처럼 한 마리 고기나 다름없지 않겠는가. 그가 이 섬에 살기 시작하여 어느 만큼 수행하는 내일에 익숙해졌다 하더라도 유마가 누구인지 알아 예가 누구인지 알 처지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다만 이곳의 인담과 우녀 그리고 소석행자만 그것으로 알맞아 “흥족하도다 흥족하도다”라고 흥흥송(喜喜頌)을 읊조릴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런 대해(大海)에 저 위엄을 갖춘 스승 석가보다 작은 웅막에 머물고 있는 세속의 거사 유마와 한봉숙이 될 것짐을 내디딘 것만은 틀림없다.

인담에게는 물 마시는 법이 있다. 한 모금을 아주 조금씩 나누어 천천히 마시는 것이다. 그것은 물을 입어삼키는 셈이어서 빈 속에 물의 충격을 주지않게 된다.

빈 속은 마치 어미가 물려다 주는 먹이를 받아 먹는 새끼처럼 조금씩 내려오는 물을 받아들이며 아주 편안해진다.

이같은 물마시는 법은 대해나 소석 그리고 두 어린 형자에게는 별로 자연스럽지 못하였다. 물이 아깝고 발라벌리 마시는 것이어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 물을 마치 약이라도 마시는 것처럼 조심스레 마시는 것이 어찌 가벼워지지 않겠는가.

하지만 이 무육도의 삭생들에서는 물이라도 이렇게 씹어먹는 것처럼, 이렇게 악을 먹는 것처럼 마셔야 그것이 몸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몸에 이로운 것이라면 미평하 마음은 이로울 것이 아니겠는가.

무육도에서는 이런 찬물 한 모금이 차 한잔이었다.

마 치 오래동안 뱀국이 물은 몸을 더운 물에 담가서 씻은 뒤 개운해진 몸인양 대해는 그 이전의 대해가 아니었다. 그런 대해를 인담이나 우녀가 어찌 몰라보겠는가.

우녀가 인담에게 속삭였다. “무육도에 랑 소 한마리가 나타났어요.”

“김은 소가 바다에서 올라왔으니 랑소가 바다로 돌아가겠소그려.”

“들어갈까요?”

“그럴 것 같소... 그러나 너도 모를 일이라도.”

“차나 한잔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저 아래쪽에서 나뭇단을 밟고 있는 대해를 불렀다.

그가 이쪽을 쳐다보다가 생쪽으로 가서 시원한 샘물을 떠오는 것이었다.

“어? 우리 마음을 짐작하고 있었던가?” 라고 인담이 기이하게 여겼다.

두 사람이 차를 마시자고 한 것이 바로 물이나 마시지는 뜻이었는데 대해가 물을 떠온 것이다. 대해가 인담에게 허물없는 사이기러도 한 것처럼 말하였다.

“이 물은 깨닫는 술입니다. 하하.”

인담이 좀 싱겁게 대꾸하였다. “그렇던가.”

“제가 지난날 실컷 퍼마신 술이야 이제 알고 보니... 그 취하는 바가 미혹이어서... 미혹의 물이었습니다.”

그때 우녀가 나섰다.

“세상의 술은 물이라기보다 불입니다. 예성강 어귀의 술장사를 물장사라 하지 않고 불장사라 하지요... 술을 마시면 가슴에 불이 나는 것이니 안 그렇겠어요?”

“허허 그렇겠습니까. 그렇다면 미혹의 물이 아니라 미혹의 불이었습니다.”

“물이란 불이란...” 이라고 우녀가 말을 돌려버렸다.

그렇게 말 속에 어떤 배가 들어있었으나 그들은 더이상 말놀이를 하지 않고 물을 몇모금씩 마셨다.

사실만큼 점심공양도 적은 양이어서 해가 기울을 때는 벌써 빈 배가 되기 앞수였다. 그때 물을 마시면 요기가 되는 것이었다.

그림 · 조향숙

장엄의 순간을 포착한다

프로필
- 지지자 30년 중정불사
- 타운엔터의 열민
- 불교 텔레비전 속법공양
- 희 희의 촬영 열민

아이템
- 전통문화 및 문화계 사진
- 일련성 - 모델 - 나레이터
- 지명성 중송사 공제 프로
- 필사선
- 사찰 행사 및 중정불사
- 기록사진
- 사찰 로스의 및 열민 사진
- 석산 작품 사진에 글씨
- 주문제작

직원 모집

- 불자로서 신심이 있고 石山의 뜻과 함께 할 수 있는 분
- 사진에 상당한 실력이 있거나 사진학과 졸업한 분
- 디자인, 비디오, 컴퓨터 등 사진에 관련 전공자로서 사진을 배우고자 하는 분으로 전문인으로 함께 성장 할 분

여의도 불교 문화 대제전
촬영 공급 공식 지정업체
불교문화 대제전 전시 및 공연 사진자료를 주문 공급합니다.

좋은 인연 石山 사진 연구소
전화 : (02)511-2001, 011-219-7770

불교인들의 민심,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귀의삼보하옵고 불교인의 인연을 원하시는 불자님!

모든생은 좋은 인연으로 부터 행복이 시작 됩니다.

기다림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안타까운 불자님!

부족이한 상황으로 인연을 맺지 못하고 있는 신심 깊은 불자님들의 자녀를 위하여 훌륭한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추진해 드리겠습니다.

소중하고 진솔한 삶을 영위하실 재혼도 환영합니다

◆ 부모님 상담 환영

남자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자임

大후, 초, 재혼 신심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이자임 결혼연구원
원장 이자임 합장 (법명: 無主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8번지 영신상가3층 317호
대표전화 : (02) 634-4910 ~ 2

'96 新 金강 영협 부적 호신불시계

관세음보살님 원력으로 성불하십시오

놀라운 신동력! 부적교한 첨단신제품

봉축 佛紀2540년
부처님의 손이 시계바늘이 되어 있어 시공을 초월하여 전지 만능의 초피를 부리는 호신불 시계입니다.

귀하의 목적을 생각치 않았습니까?

- 부처님상과함께
- 오스카워터리터
- 15년 A/S
- 30일 필수보증
- 2년도 크리시탈
- 18K Gold Crown
- 특수 300 공칭도금.

138,000원 남·여한쌍

구입문의: 금강 정사 불교연합회 (02)252-4468(대)
서울-수도권은 즉시 배달해 드리며 지방에 계신불자님은 먼저 물품을 받으시고 결제하시면 됩니다.

1. 소인 성취 부적
바람에 소원성취 목적을

2. 칠성 부적
후면에 칠성 목적을

3. 삼재 소멸 부적
삼재소멸부적 추가제작하여

금강 부적시계의 장점

- 세입방지
- 무방한수
- 온전시계부고
- 합력소원성취
- 실속소용
- 실안인정
- 합력자나구제
- 영합의 신비제작

남·여 1세트
특별현금: ₩138,000
할부시 계약금: ₩18,000
매월 30,000원 x 5회
(신용카드 구입시 분할 무대)